

서초구의회,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제346회 임시회 개최 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각오 다져

의회는 1월 8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새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최정규 의정회 회장, 김수곤 초대 의장을 비롯한 의정회 회원들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고광민 시의원, 구·동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2026년도 의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의회는 1월 13일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새해 첫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6년 구정업무보고와 3건의 5분자유발언,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고선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의 각종 구정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완성돼야 한다"며 "주민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늘 마음에 두고 민생을 점검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는 1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5분자유발언

DX에서 AX로, 서초구 인재 양성 정책의 전환 필요성	하서영 의원
장애인 등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 제언	오지환 의원
AI시대의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변전소 설치 협력 촉구	김성주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관내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해 보전 및 이용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보전활동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이·미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서비스 이용 한계를 해소,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하서영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초구 위례과천선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의회는 1월 19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례과천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해, 지역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우면동 역사 신설과 선바위역 경유를 통한 환승 연계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의회, 2025년 종합청렴도 '서울 자치구 의회 중 최고 성적' 기록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 가장 높은 등급인 2등급을 기록하며 서울 내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입증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종합 점수 80.0점을 기록하며 전국 기초구의회 평균(72.5점)을 7.5점 상회했다. 특히 기관의 자구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년(79.5점) 대비 13.9점이 상승한 93.4점을 기록했다.